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 남 숙[†]

한국외국어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이성교제 만족도에서의 남녀 차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남녀 대학생 중,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2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학생의 전반적 자아정체감 수준과 이성교제 만족도에서 남녀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주도성과 친밀성에서 남녀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에서의 집단간 차이검증에서 남녀전체, 남자대학생, 여자대학생 집단 모두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이성교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정체감은 남녀전체, 남자대학생, 여자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이성교제 만족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기수용성이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양상이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결과,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기수용성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대학생의 경우 주체성과 정체감유예가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정체감유예는 이성교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자아정체감 수준, 이성교제 만족도, 친밀성, 자기수용성, 정체감유예, 발달과업

[†] 교신저자 : 박 남 숙,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연구교수, 연세대 교육학과 강사
E-mail : nspark@hufs.ac.kr

Erikson(1963)의 생애발달이론에 따르면 성인초기, 즉 청년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아 정체감 확립과 친밀감의 형성이다. 정체감 확립과 친밀감 형성이라는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이후의 발달과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정체감이란 타인과 다른 고유한 개인의 개별성, 독자성을 의식 또는 자각을 의미하며, 외적 변화와 내적 갈등에 직면하면서도 일관된 자기로서 계속하려고 하는 주체적인 자아의 통합과정을 의미한다. 자아정체감은 개별성, 총체성, 계속성의 특성을 지니는데, 여기서 ‘개별성’이란 개인적인 가치나 동기 또는 관심을 어느 정도 타인과 공유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타인과 다르다는 인식, 즉 자신을 독특하다는 인식이고, ‘총체성’은 자신의 욕구, 태도, 동기, 행동양식 등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계속성’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자신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이다(정옥분, 1998). 친밀성(intimacy)이란 친밀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타인과 개방적이고 정신적이며 지지적이고 부드러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성인 전기에 친밀성을 위한 욕구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Erikson, 1968).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야 진정한 친밀감을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친밀감은 두 사람의 정체감의 융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친밀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아정체감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Erikson, 1982).

Marcia(1966)는 정체감 발달에 대한 Erikson의 이론을 발전시켜 자아정체감의 발달수준을 수행 정도와 개인적인 정체감 위기를 경험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체감 지위를 성취, 유예, 유실, 혼미의 4단계로 분류했다. 정체감성취(Identity

Achievement)는 자아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등에서 자기 확신이 상태를 말한다. 정체감유예(Identity Moratorium)는 현재 정체감위기 상태에 있으면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 신념, 행동 등을 실험하고 있으나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의 위기를 해결했을 때 정체감성취 단계로 가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더러는 정체감혼미로 기울어지기도 한다. 정체감유실(Identity Foreclosure)은 부모의 역할모델의 가치나 기대를 그대로 수용하여 그들과 비슷한 선택을 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정체감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쉽게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정체감혼미(Identity Diffusion)는 자아에 대해 통합되고 안정된 견해를 갖는데 실패했거나, 정체감에 대한 탐색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정체감혼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자아에 대한 경계선도 뚜렷하지 않다(Marcia, 1966, 1976).

Orlofsky와 Marcia, Lesser(1973)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체감지위와 친밀성정도가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체감지위가 높은 집단이 친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acerguis와 Adams(1980)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체감 지위를 획득한 집단이 친밀감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더 성공적이고 성숙한 친밀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의 관련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박아청(1994)이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체감 지위와 친밀감 지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남학생의 경

우 정체감지위가 높을수록 친밀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협동성 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정체감성취수준이 증가할수록 친밀성지위의 개방성 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정체감 위기의 해결이 성숙한 친밀성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경혜(1991)의 연구에서도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지위 간에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감지위가 높을수록 친밀성 지위도 높게 나타났다.

Erikson(1982)은 정체감과 친밀감 발달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정체감 위기의 해결 후에 친밀성의 해결에 대처하나 여자의 경우에는 정체감의 위기와 친밀성 위기와 해결이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Whitebourne과 Jelsma, Watreman(1982)은 대학 3·4학년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차를 중심으로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와의 연관을 검토한 결과, 정체감 위기의 해결이 성숙한 친밀성의 달성과 관계가 있고, 이 관계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있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아청, 1994 재인용). Josselson(1973)은 여자의 정체감 위기와 친밀성 위기와 연관을 검토하고 여자는 정체감 형성의 과정과 친밀성 형성의 과정이 병행하며, 정체감의 강화와 친밀성의 심화가 상호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남자의 경우 정체감 발달이 친밀감 발달에 선행하며, 여자의 경우에는 정체감과 친밀감 발달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두드러진 특성을 시사한다. 여성발달에 관한 일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자아정체감에서 친밀성은 중요한 측면이며 친밀감 형성을 통해 정체감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rrey, 1991; Kaplan, Klein, & Gleason, 1991).

정체감과 친밀감 발달의 남녀 성차에 대한 우

리나라의 연구에서 이경혜(1991)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체감지위와 친밀성 지위에서 남녀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는 성차에 따른 정체감지위와 친밀성 지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에는 상관이 있었는데, 정체감 지위가 높을수록 친밀감 지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아청의 연구(1994)에서도 정체감 지위와 친밀감 지위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체감과 친밀감 발달의 남녀 성차에 대한 Erikson의 이론은 우리나라의 경우,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아정체감과 이성과의 친밀성에 대한 연구에서 Erikson은 정체감이 확립된 후야 이성과의 안정된 친밀감을 맺을 수 있고 하였다. 자아정체감이 혼란한 경우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정체감 상실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진정한 친밀성을 형성할 수 없고, 가짜 친밀성 즉, 파트너와의 충동적 성적관계로 빠지게 된다. 또한 정체감 상실에 대한 격한 불안과 분노가 생기면 그 공격성은 친밀한 대상에게로 향하여 관계의 급격한 붕괴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Erikson, 1968; 1982). Sternberg(2001) 역시 이성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친밀감 형성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김중술(2001)은 자아정체감이 확립된 사람이라야 친밀한 애정관계에서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압도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사랑을 주고받는 상호교류가 가능하며,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인지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인발달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정체감과

친밀감의 발달이 부부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Sloan과 L'Abate(1985)는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인 정체감과 친밀감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 결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배우자의 친밀성 형성 능력의 결여가 부부갈등 및 결혼 불만족의 중요 요인이며, 배우자의 정체감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친밀감 형성 능력이 결여된다고 하였다(Calson & Sperry, 1999; Sloan & L'Abate, 1985; Waring & Chelune, 1983).

이상의 연구들에 의하면 자아정체감과 친밀성, 이성관계 만족도 혹은 결혼만족도는 상호 관련이 깊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발달적 맥락에서 볼 때에 이성관계 만족도 혹은 결혼만족도는 각 파트너 혹은 배우자가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친밀성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취하였는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발달적 위기를 해결하고 자아정체감을 성취한 사람들은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과 불안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으므로 이성관계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며, 이성관계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Sloan & L'Abate, 1985).

우리나라에서 자아정체감과 이성교제 만족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20대 교회청년들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이성교제 만족도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이혜림의 연구(2002)를 제외하고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자아정체감과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의 전반적 자아정체감 수준과 이성교제 만족도에 관한 연구나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자아정체감 이외에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성별, 연령, 학년, 교제기간, 교제경험 등의 변인 중, 이성교제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자아정체감 각각의 하위요인이 이성교제 만족도 및 각각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양상이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이성교제 만족도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1. 남자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여자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자아정체감, 성별, 연령, 학년, 교제기간, 교제경험 등의 변인 중 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3-1. 남자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3-2. 여자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자아정체감 각각의 하위요인은 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4-1. 자아정체감 각각의 하위요인은 남자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 및 각각의 하위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4-2. 자아정체감 각각의 하위요인은 여자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 및 각각의 하위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4개 대학에서 교양강좌 과목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 중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이성교제 만족도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종 자료 분석은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자 250명 중에 남학생이 87명(34.8%), 여학생이 163명(65.2%)이었다. 1학년은 남녀 합하여 60명(24.0%), 2학년 77명(30.8%), 3학년 57명(22.8%), 4학년이 56명(22.4%)으로 학년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전체가 22세이고 남자는 23세, 여자는 22세였다.

측정도구

자아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정체감척도는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형 다면적 자아정체감 척도이다. 이 척도는 Erikson의 정체감 발달단계이론에 근거하여 자아정체감의 다차원적 측면을 한국인의 문화와 감성에 맞도록 개발한 것으로 총 64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정체감유예, 정체감흔미 등의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만족도 척도

이성교제만족도 척도는 권정혜, 채규만(1998)이 Snyder(1979)의 결혼만족도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한국실정에 맞게 제작한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Korean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유소영(2000)이 이성교제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성교제만족도 척도는 총 7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반적만족, 관습적반응, 공유시간, 문제해결의사소통, 정서적의사소통의 5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7$ 로 높게 나타났다.

절차 및 분석방법

설문지는 2004년 10월 교양과목 시간에 담당교·강사를 통하여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0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첫째, 자아정체감 수준과 이성교제 만족도에서 남녀대학생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이성교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 과

자아정체감 수준과 이성교제 만족도에서의 남녀 차

자아정체감 수준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에서의 집단간 차이에 대한 t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 수준에서 남자

표 1. 자아정체감 및 하위요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결과

	전체 M(SD)	남자 M(SD)	여자 M(SD)	t
자아정체감	218.11(23.09)	222.26(23.03)	216.01(22.91)	1.95
주체성	28.67(3.99)	28.70(4.01)	28.65(4.00)	.08
자기수용성	33.07(5.37)	33.31(5.33)	32.95(5.40)	.50
미래확신성	25.01(4.91)	25.26(4.79)	24.88(4.98)	.59
목표지향성	25.07(3.68)	25.29(3.68)	24.95(3.69)	.68
주도성	25.89(3.78)	26.56(3.74)	25.54(3.76)	2.04*
친밀성	26.67(4.91)	27.57(4.91)	26.19(4.86)	2.12*
정체감유예	18.10(2.31)	17.86(2.47)	18.22(2.21)	-1.17
정체감혼미	20.85(4.12)	20.46(2.21)	21.06(3.87)	-1.10
사례수(%)	250(100)	87(34.8)	163(65.2)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생과 여자대학생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아정체감 수준의 하위요인별로 보면 주도성과 친밀성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다른 6개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아정체감 수준에서의 남녀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 전반적 자아정체감 수준에서는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차이검증에서는 주도성과 친밀성에서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만족도

성별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에서의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이성교제 만족도에서 남자대학생 집단과 여자대학생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위영역별로도 남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의 차이

전체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자아정체감 점수를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녀 전체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에서 집단간의 차이검증 결과, $p < .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만족, 공유시간, 정서적의사소통에서 $p < .001$ 수준에서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습적 반응과 문제해결의사소통에서는 $p < .01$ 수준에서

표 2. 이성교제 만족도 및 하위요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전체 M(SD)	남자 M(SD)	여자 M(SD)	t
이성교제만족도	256.72(42.22)	253.98(42.24)	258.27(42.27)	-.74
전반적만족	79.45(14.66)	79.25(14.40)	79.56(14.84)	-.16
공유시간	36.56(6.21)	36.14(6.22)	36.77(6.21)	-.76
관습적반응	30.35(6.57)	30.80(7.08)	30.11(6.29)	.79
문제해결의사소통	64.55(11.38)	62.84(11.89)	65.51(11.00)	-1.76
정서적의사소통	45.88(8.11)	45.43(8.46)	46.13(7.93)	-.65
사례수(%)	250(100)	87(34.8)	163(65.2)	

* $p < .05$ ** $p < .01$ *** $p < .001$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 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이성교제시에 전반적만족, 공유시간, 관습적행동, 문제해결의사소통, 정서적의사소통에서 경험하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및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전체 M(SD)	남자 M(SD)	여자 M(SD)	
이성교제만족도	상	269.81(39.54)	266.11(37.65)	271.84(40.54)
	하	244.40(40.00)	242.17(44.31)	245.55(38.05)
전반적만족	상	83.65(13.24)	83.60(13.48)	83.74(13.34)
	하	75.87(15.03)	75.51(14.34)	75.87(15.29)
공유시간	상	38.44(5.41)	38.00(6.81)	38.80(5.65)
	하	34.82(6.19)	33.94(4.94)	35.07(5.81)
관습적반응	상	32.08(6.52)	31.85(7.46)	32.18(5.93)
	하	28.79(6.26)	29.97(7.08)	28.19(5.87)
문제해결의사소통	상	67.29(11.58)	64.80(11.07)	68.53(11.59)
	하	61.91(10.37)	59.95(12.20)	62.95(9.46)
정서적의사소통	상	48.45(7.77)	48.44(7.70)	48.59(7.64)
	하	43.61(7.54)	42.62(8.43)	43.99(7.23)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변량분석표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이성교제만족도	34546.55	1	34546.55	21.84***
전반적만족	3418.77	1	3418.77	17.04***
공유시간	747.09	1	747.09	22.13***
관습적반응	609.86	1	609.86	14.92**
문제해결의사소통	1618.82	1	1618.82	13.42**
정서적의사소통	1618.82	1	1618.82	22.28***

* $p < .05$ ** $p < .01$ *** $p < .001$

남자대학생

남자대학생 집단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차이검증 결과 표 5와 같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p < .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분석에서는 전반적만족, 공유시간, 정서적의사소통에서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 < .01$). 관습적반응과 문제해결의사소통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아정체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영역인 전반적만족, 공유시간, 정서적의사소통에서 경험하는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여자대학생의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이성교제 만족도에서 $p < .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표 5. 남자대학생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변량분석표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이성교제만족도	10593.80	1	10593.80	6.30**
전반적만족	1256.87	1	1256.87	6.51**
공유시간	311.64	1	311.64	8.95**
관습적반응	66.62	1	66.62	1.26
문제해결의사소통	452.88	1	452.88	3.35
정서적의사소통	641.87	1	641.87	9.87**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여자대학생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변량분석표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이성교제만족도	24188.17	1	24188.17	15.66***
전반적만족	2310.90	1	2310.90	11.21***
공유시간	530.63	1	530.63	16.17***
관습적반응	592.70	1	592.70	17.04***
문제해결의사소통	1144.24	1	1144.24	10.28**
정서적의사소통	778.46	1	778.46	14.08***

* $p < .05$ ** $p < .01$ *** $p < .001$

났다. 하위요인별 차이검증에서는 전반적만족, 공유시간, 관습적반응, 정서적의사소통에서 $p < .00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의사소통에서는 $p < .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만족, 공유시간, 관습적반응, 정서적의사소통, 문제해결의사소통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전체: 자아정체감과 성별, 연령, 학년, 교제경험, 교제기간 등의 독립변인들 중에서 이성교제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표 7에서와 같이 자아정체감과 이성교제 경험, 두 요인만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은 이성교제 만족도의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경험은 3%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대학생: 남자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이 자아정체감이 이성교제 만족도의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학년으로 7%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여자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9와 같이 자아정체감이 17%의 설명력

표 7.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설명변인	β	R^2	R^2 변화량	F변화량
1	자아정체감	.39	.15	.15	37.10***
2	교제경험	.17	.18	.03	7.46**

* $p < .05$ ** $p < .01$ *** $p < .001$

표 8. 남자대학생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요인	단계	설명변인	β	R^2	R^2 변화량	F변화량
이성교제 만족도	1	자아정체감	.37	.14	.14	11.30***
	2	학년	.27	.21	.07	5.98**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여자대학생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요인	단계	설명변인	β	R^2	R^2 변화량	F변화량
이성교제 만족도	1	자아정체감	.41	.17	.17	27.88***
	2	교제경험	.27	.24	.07	12.92***

* $p < .05$ ** $p < .01$ *** $p < .001$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교제경험으로 7%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체

자아정체감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남녀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요인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표 10에서와 같이 자아정체감 8개의 하위요인 가운데 자기수용성이 13%로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 다음은 주체성으로 3%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감유에는 2%의 부적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하위 요인 중 이성교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수용성임을 알 수 있었다. 정체감유에는 이성교제에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이 남녀대학생 이성교제 만족도 각각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남자대학생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이 남자대학생의 이성교

표 10. 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에 대한 자아정체감 하위요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설명변인	β	R^2	R^2 변화량	F변화량
1	자기수용성	.36	.13	.13	31.88***
2	주체성	.22	.16	.03	8.06**
3	정체감유예	-.15	.18	.02	4.98*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남자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 및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단계적 회기분석 결과

요인	단계	설명변인	β	R2	R2변화량	F변화량
이성교제 만족도	1	자기수용성	.35	.12	.12	10.09**
전반적만족	1	자기수용성	.40	.16	.16	14.08***
공유시간	1	자기수용성	.34	.11	.11	9.48**
관습적반응	1	주도성	.28	.08	.08	6.18*
문제해결의사소통	1	주도성	.37	.14	.14	11.77***
정서적의사소통	1	주체성	.39	.15	.15	13.22***
	2	주도성	.25	.21	.06	5.13*

* $p < .05$ ** $p < .01$ *** $p < .001$

제 만족도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각각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남자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은 자기수용성으로 12%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각각의 하위요인이 이성교제 만족

도 각각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기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만족에서는 자기수용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수용성이 이성교제 하위요인인 전반적만족에 12%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시간에서는 자기수용성이 16%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습에서는 주도성이 8%의 설명력을 가진

표 12. 여자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 및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의 단계적 회기분석 결과

요인	단계	설명변인	β	R2	R2변화량	F변화량
이성교제 만족도	1	주체성	.37	.14	.14	22.51***
	2	정체감유예	-.22	.18	.04	7.14**
전반적만족	1	자기수용성	.36	.13	.13	21.31***
공유시간	1	정체감유예	-.34	.12	.12	19.65***
	2	주체성	.21	.16	.04	6.98**
관습적반응	1	자기수용성	.34	.11	.11	18.65***
	2	미래확신성	.17	.14	.03	4.07*
문제해결의사소통	1	자기수용성	.31	.10	.10	15.59***
	2	정체감유예	-.21	.14	.04	6.25**
정서적의사소통	1	주체성	.42	.17	.17	30.64***

* $p < .05$ ** $p < .01$ ***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의사소통에서는 주도성이 14%의 설명력을 가진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의사소통에서는 주체성과 주도성이 각각 15%, 6%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이 여자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각각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여자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은 주체성과, 정체감유예로 각각 14%, 4%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각각의 하위요인이 이성교제 만족도 각각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만족에서는 자기수용성이 13%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시간에서는 정체감유예와 주체성이 각각 12%, 4%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습에서는 자기수용성과 미래확신성이 각각 11%, 3%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의사소통에서는 자기수용과 정체감유예가 각각 10%, 4%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의사소통에서는 주체성이 17%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이성교제 만족도에서 남녀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전반적 자아정체감 수준에서 성차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정체감 발달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없다는 선행 연구와 일

치한다(박아청, 1994, 이경혜, 1991). 그러나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주도성과 친밀성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남자대학생의 경우 여자대학생에 비해 특히 주도성과 친밀성에서 정체감 위기의 해결이 앞서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교제 만족도에서도 역시 남녀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전반적 만족도와 각 하위영역에서의 만족도의 평균점수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남자의 경우 정체감 해결이 친밀감 형성에 선행하며, 여자의 경우 친밀감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추구한다는 Erikson의 발달적 관점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Erikson, 1968, 1982; Whitebourne et al., 1982).

둘째,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정체감 수준고저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의 집단간 차이검증에서는 전체집단, 남자대학생집단, 여자집단 모두에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녀대학생 모두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만족도가 높고, 반면에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을수록 이성교제시에 경험하는 불만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한 사람이 이성교제에서 더 성공적인 친밀관계를 경험한다는 발달적 관점을 뒷받침한다(Erikson, 1982; Matula, Huston, Grotevant, & Zamutt, 1992; Tesch & Whitebourne, 1982).

셋째, 자아정체감과 성별, 연령, 학년, 이성교제 경험횟수, 교제기간 등의 독립변수들 중 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자아정체감과 이성교제 경험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은 이성교제만족도의 15%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교제경험으로 만족도의 3%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대학생의 경우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정체감과 학년이 각각 14%, 7%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자아정체감과 교제경험이 각각, 17%, 7%의 설명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남녀 모두 자아정체감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임을 말해준다. 성별, 연령, 교제기간 등은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연령이 높아지거나 교제기간이 길어진다고 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성교제가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파트너를 바꾼다거나, 자신에 대한 이하나 자기 확신감이 없이 교제기간을 오래 늘린다고 해서 이성교제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성교제 경험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이성교제 경험을 통해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위기를 다루는 법을 숙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성교제에서 만족스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아정체감 성취와 함께,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위기를 다루는 법을 숙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넷째, 자아정체감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이성교제 만족도 및 각각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양상이 남녀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 남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이성교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은 자기수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만족도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보면 문제해결의사소통에서는 주도성이, 정서적 의사소통에서는 주체성과 주도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반적만족과 공유시간에서는 자기수용성이, 관습적반응에서는 주도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기수용성과 주도성, 주체성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은 주체성과 정체감유예로 나타났다. 주체성은 이성교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정체감유예는 이성교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 보면 문제해결의사소통에서 자기수용성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정체감유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의사소통에서는 주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반적만족에서는 자기수용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시간에서는 정체감유예가 부정적 영향을, 주체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습적반응에서는 자기수용성과 미래확신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기수용성과 주도성, 주체성 등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반면에 여자대학생의 경우 주체성, 정체감유예, 주체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기수용성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반면에 여자대학생의 경우 정체감유예가 이성교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자기수용성은 남녀대학생 모두에게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가장 설명력인 큰 공통적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자기수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성교제 시에 파트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크고, 파트너와의 공유시간에 대한 갈등이 적으며, 파트너의 관습적 반응에 대해서도 불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자기수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파트너와의 대화시에 갈등상황에서 공감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따라서 문제 해결의사소통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문제해결의사소통, 정서적 의사소통 만족도에서 주도성과 주체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자기 확신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정체감유예가 이성교제 전반적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성교제 시 경험하는 파트너와의 불만족이나 갈등은 개인의 발달과업의 수행과 실패에서 오는 불안이나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뒷받침하며, 여자대학생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 특징임을 시사한다(Hamachek, 1990; Matula et al., 1992; Newman & Newman, 1991).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정체감 성취의 여부가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유보시켜 놓았던 자아정체감 형성에 따른 위기와 이성교제 시에 친밀감 형성과 관련된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자아정체감 유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발달적 위기로 인한 자기내적 불안이 자신과 같은

불안정한 단계에 있는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고조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적 역동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게 하거나 불만족스런 경험과 연결될 수 있다. 반면에 정체감 위기를 해결하고 정체감성취 단계에 다다른 경우에는 이성과의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 및 교육에의 시사점

이성교제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는 첫째, 내담자가 이성교제 시에 경험하는 불만족이나 갈등을 정체감 확립과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을 말해준다. 이성교제 시에 경험하는 이성과의 갈등이 다른 외적 요인이나 파트너의 문제에 기인하기 보다는 자기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부모나 권위자에 대한 심리적 의존, 파트너에 대한 심리적 투사와 자기자신의 발달과업 미해결에서 오는 내적 역동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성교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에서는 이성교제 시에 경험하는 갈등이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 이해는 내담자로 하여금 이성교제 시에 겪게 되는 갈등을 좀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현재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과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에 대한 자기 이해를 돕고 발달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이성교제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이 남녀대학생 공통적으로 자기수용성이라는 연구결과는 이성문제나 이

성과의 갈등과 관련된 내담자에 대한 상담적 개입이 자기수용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양상이 남녀별로 다르게 나타나다는 연구결과는 내담자의 성별에 따라 상담적 개입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기수용성, 주도성, 주제성 등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하위요인이라는 연구결과는 파트너와의 문제해결의사소통, 정서적의사소통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상황에서 회피하거나 갈등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용하고 자기 확신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려는 대처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정체감유여가 이성교제 시에 불만족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내적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는 자아정체감 성취라는 발달과업과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동시에 원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상담적 도움을 제공해야 함을 말해준다.

넷째, 정체감위기의 해결과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면서 기인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이성과의 진정한 친밀감의 경험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심리사회적 성장발달을 이루고 성숙한 결혼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훈련 혹은 결혼예비교육을 강화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이성과의 파트너쉽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성교제나 결혼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해야 하는 생애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분화와 통합, 성숙과 병행하는 발달과업임을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아정체감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나 부부

갈등 역시 발달과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아정체감과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의 미해결이 결혼한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결혼갈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자아정체감이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아정체감 외에도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중술 (2001). 신 사랑의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남숙 (2000).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아청 (1994).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간의 정준상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64-76.

박아청 (1998).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스텐버그, R. J. (2001). 사랑의 심리학. 최연실(역). 서울: 하우

이혜경 (1991). 정체감지위와 친밀성지위와의 상관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혜림 (2002). 20대 교회청년의 자아정체감과 이성교제 관계만족도와의 상관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옥분 (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차명호 (2000). 발달과업으로서의 결혼: 상담에 대한 시사점. 평택대학교논문집, 14(1), 283-297

Carlson, J. & Sperry, L. (1999). Introduction: A

- context for thinking about intimacy. In J. Carlson & L. Sperry(Ed.), *The intimate couple*. Edward Brothers: Ann Arbor, MI.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f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Norton
- Fitch, S. A., & Adams, G. R. (1963). Ego-identity and intimacy status: Replication and exten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39-845
- Hamachek, D. (1990). Evaluating self-concept and ego development within Erickson's last three psychological stag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677-683
- Josselson, R. L. (1973). Identify formation in college woman: Psychodynamic aspects of identify formation in college woma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 145-167
- Kacerguis, M. A., & Adams, G. R. (1980). Erikson stage resolu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fy and intima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117-126
- Kaplan, A. G., Klein, R., & Gleason, N. (1991). Women's self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In J. V. Jordan, A. G. Kaplan, J. B. Miller, I. P. Stiver & J. L. Surrey(Eds.), *Women's growth in connection*. New York: The Gulifor Press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rcia, J. E., & Lesser, I. M. (1973). Ego identity status and intimacy vs. isolation crisi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211-219
- Marcia, J. E. (1976). *Identity six years after: A follow-up*.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117-126
- Marcia, J. E. et al. (1983). *Ego Identity*. New York: Spring-VerlagOrlofsky. J. L.
- Matula, K. E., Huston, T. L., Grotevant, H. D., & Zamutt, A. (1992). Identity and dating committment among women and men in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339-356
- Miller, I. J. (1991). The development of women's sense of self. In J. V. Jordan, A. G. Kaplan, J. B. Miller, I. P., Stiver & J. L. Surrey(Eds.), *Women's growth in connection*. New York: The Guliford Press
- Newman, B. M., & Newman, P. R. (1991). *Development Through Life*(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Orlofsky, J. L., Marcia, J. E., & Lesser, I. M. (1973). Ego Identity status and the intimacy versus isolation crisis of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and Social Psychology, 17*, 211-219.
- Rogers, C. R. (1972). *Becoming partners: Marriage and its alternatives*. New York: Delacorte.
- Sloan, S. Z., & L'Abate, L(1985). Intimacy. In L'Abate(Eds).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405-430*. IL: The Dorsey Press
- Tesch, S. A., & Whitebourne, S. K. (1982). Intimacy and identity status in young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041-1051
- Surrey, J. L. (1991). The "Self-in-Relation": A Theory of Women's Development. In J. V. Jordan, A.

- G. Kaplan, J. B. Miller, I. P. Stiver, & J. L. Whitbourne, S. K., Jelsma. B. M., & Waterman, A. Surrey(Eds.), *Women's growth in connec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arning, E. M., & Chelune, G. J. (1983). Marital intimacy and self-disclosu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183-190
- S. (1982). An Eriksonian measure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A Reexamination of constantinople's data and a partial repl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73-378

원 고 접 수 일 : 2004. 11.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 21

게 재 결 정 일 : 2005. 2. 3

K C I

The Effects of Ego Identity Status on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Nam-sook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college students' ego identity status and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degre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the effects of ego identity on the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degree.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0 college students engaging in intimate couple relationship at present in Seoul and Kyeong-gi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college men students and women students in both general ego identity status level and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degree. But the degree of sub-factors of ego identity status such as, leadership and intimac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high-degree ego identity status group and the low-degree ego identity status in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degree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group. Third,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ffects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degree was ego identity status. Fourth, the most positive sub-factor of ego identity status effects on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degree was self-acceptance. But there was some difference in male and female student group. In male student group, the most significant sub-factor of ego identity status was self-acceptance. In female student group, the significant sub-factor of ego identity status was self-assurance and identity-moratorium. The identity-moratorium affected negatively on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degree in female student group.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ego identity status affects the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degree. The most positive sub-factor is self-acceptance in male student group, the negative sub-factor is identity-moratorium in female student group.

Key Words : ego identity status,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degree, intimacy, self-acceptance, identity-moratorium, developmental task

부록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명(%)
성별	전체	250명(100.0)
	남자	87명(34.8)
	여자	163명(65.2)
나이	19세이하	3명(1.2)
	20세-23세	170명(68.0)
	24세이상	77명(30.8)
학년	1학년	60명(24.0)
	2학년	77명(30.8)
	3학년	57명(22.8)
	4학년	56명(22.4)
교제횟수	1회	51명(20.4)
	2회	60명(24.0)
	3회	66명(26.4)
	4회	69명(27.6)
교제기간	6개월미만	85명(34.0)28.8)
	6-12개월	72명(28.8)
	13-18개월	29명(11.6)
	19-24개월	22명(8.8)
	2-3년	23명(9.2)
	3년이상	14명(5.6)
신분	학생	207명(82.8)
	직장인	29명(11.6)
	기타	11명(4.4)
부모님	친부모생존	236명(94.4)
	한부모생존	5명(2.0)
	계부모	1명(.4)
	부모별거	1명(.4)
	부모이혼	7명(2.8)
부모님과 동거여부	동거	176명(70.4)
	자취	40명(16.0)
	하숙	4명(1.6)
	기숙사	29명(11.6)
	친척집	1명(.4)
부학력	국졸	4명(1.6)
	중졸	11명(4.4)
	고졸	82명(32.8)
	대졸이상	153명(61.2)
모학력	국졸	5명(2.0)
	중졸	19명(7.6)
	고졸	125명(50.0)
	대졸이상	101명(40.4)
월수입	100만원미만	5(2.0)
	100-200만원	35(14.0)
	200-300만원	59(23.6)
	300-400만원	52(20.8)
	400-500만원	46(18.4)
	500만원이상	46(18.4)